

北 3차 핵실험 폭발력 6~9kt이나, 40kt이나

국방부-獨 지질연구소 발표 달라 논란 '비핵화' '확산방지' 정책 충돌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까.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가 인공지진과 4.9 규모를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VTBT)의 산출공식에 근거해 다이너마이트(TNT) 6~9k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당시의 1kt이나 2차 핵실험(2009년) 당시 2~6kt의 폭발력보다는 컸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21kt)와 히로시마(16kt)에 투하했던 핵폭탄의 폭발력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는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에 달한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BER이 추정하는 폭발력은 한국 국방부는 물론 미국이 추정하는 '몇 kt', 러시아의 '7 kt 이상'과 비교해도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핵무기 폭발력의 산정방식이 분석 주제나 실험 당시 환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진도 규모에 따른 위력이 다르게 평가된다.

진도 규모가 1이 올라갈 때 자연지진의 경우 32배 증가하지만 핵실험 같은 인공지진은 10배 올라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12일 3차 핵실험 당시 감지된 4.9 규모의 '인공지진' 진도를 실제 얼마로 평가할지는 앞으로 핵실험 이후 포집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위력(16kt)을 보이려면 인공 지진 진도 4.7~4.8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지된 4.9 규모라면 20kt 이상, 심지어 독일의 BER처럼 40kt에 달하는 폭발력도 가능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추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히로시마급 이상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2003년부터 가동해온 북핵 6차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군축 회담'으로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확산방지'로 중심이 동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여전히 상정하고 있는 한국과 '정책 목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양국이 북핵 정책을 놓고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은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핵실험의 "그 위력과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실험을 관측한 적들 자신이 잘 알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北 핵실험 말라” 대한민국바세우기본부 회원들이 14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제2 새마을운동' 추진

인수위, 협동조합 등 기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14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8차 간사단회의에서 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의 조직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2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안 인수위원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들을 활성화하는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제안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안 인수위원은 그동안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강조해 왔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저회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창조경제)을 주로 시장경제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개념을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라며 "고용, 복지와 모두 관련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집행부 의회발전방향 안건 마찰

광주시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집행부가 올해 의회 발전방향 안건 채택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중순에 의회 발전방향을 위한 10건의 안건을 작성해 구의장에게 건의했다.

안건에는 ▲상임위원장의 업무를 돕는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돕는 담당위원의 한 사무실 사용 ▲의사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한 사무실 근무 ▲상임위원장 회의 정례화 ▲상임위원장 회의 시 의사국장 참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구의장은 최근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등을 소집해 안건 채택 문제를 놓고 의장단 회의

를 열었으나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끝마쳤다.

각 상임위원장은 구의원·담당직원, 상사와 부하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안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집행부 측은 그간 행정누수가 없었고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며 맞섰다.

북구의회 한 상임위원은 "의사국장 직원들이 한 사무실을 쓰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사무실을 재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이는 곧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공조, 대북압박 펼쳐야”

김총리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항상 존재”

국회대정부질문

국회의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배경과 대응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대북정책의 재정립에 주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속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남북 대화 등 전략적 관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한반도 주변 6개국 간의 일치된 행동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한이 추가도발 시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성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 뒤, 우리와는 상대도 않으면서 이른바 통미통남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으로부터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력화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 지난 2000년 추진된 김대중-클린턴 모델 식의 일괄타결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홍식 국무총리는 "경도의 내용 등으로 비춰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명

노회찬·이재균 의원직 상실 19대 의원 당선 무효형 15명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재균(59·부산 영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

지방선거	
여성 구의원들, 생협 선진지 방문	광주지역 여성 구의원들로 구성된 '플러스 알파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 참여한 의원(이상 동구의회), 김수영·주경민 의원(서구의회), 김예정·한덕
서구의원 8명, 北 핵실험 규탄 성명	광주시 서구의원 8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에 나선 민주당당 소속 주경민 의원은 성명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핵실험은' 자국의 안전과 주민 수호를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구정원) 광주 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미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순번서건내선)